

12/16/18

설교 제목: 믿음의 행동과 하나님의 상관하심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에스더 5 장 1-14 절

- (에 5:1) 제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절관주** 에 6:4
- (에 5:2)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 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규 끝을 만진지라
- (에 5:3)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절관주** 에 5:6
- (에 5:4)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 (에 5:5)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풀 잔치에 가니라
- (에 5:6)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 (에 5:7)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 (에 5:8)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 (에 5:9) ○그 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 (에 5:10)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 (에 5:11)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 (에 5:12)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풀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 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절관주** 잠 27:1

(에 5:13)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에 5:14)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드디어 삼일 금식 기도로 무장한 에스더가 행동 개시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 에스더의 생명이 달린 조마조마한 순간입니다.

(에 5:1) 제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에 5:2)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 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규 끝을 만진지라

에스더는 수산 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시작한지 삼일째 되던 날 왕실의 규례를 어기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부르지도 않은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 편에 서니 왕이 마침 문을 바라보는 위치에 앉아 있다가 뜰에 선 에스더를 봅니다.

그런데 뜰에 서있는 에스더의 모습이 그날따라 어찌 그리 사랑스럽게 보이는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환하게 되면서 광채가 납니다.

에스더의 얼굴이 삼일 금식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고 이랬을 것입니다.

왕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손에 잡고 있던 금 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었고 에스더는 그 금 규를 잡았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호의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더는 목숨을 내놓고 강행했던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섰는데 왕은 의외로 호의적입니다.

(에 5:3)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까지 물으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고 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에게는 두 번째 관문을 통과시켜야 하는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에스더의 목숨이 달린 문제지만 두 번째 관문은 바사에 살고 있는 전 유대인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에스더가 느끼고 있는 부담감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전략을 짭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이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다고 하면서 하만과 같이 올 것을 청합니다.

(에 5:4)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 5:5)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 5:6)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이 하만을 데리고 잔치에 왔습니다.

왕은 하만 앞에서 에스더에게 또 다시 소원을 물으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에스더의 전략에 왕이 끌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의 물음에 바로 답하지 아니하고 뜸을 들입니다.

(에 5:7)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에 5:8)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왕에게 다음 날 또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베풀려고 하니 다시 찾아와 달라고 하면서 그때 자신의 소원을 말하겠다고 합니다.

에스더가 왜 왕에게 소원을 말하는 것을 그 다음 날로 미루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분위기가 더 무르익을때까지 기다려야 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협력해 선을 이루고자 인도하신 일입니다.

한편 하만은 하늘을 날 것만 같습니다.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황송하게도 왕을 제외하고는 자신만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왕후가 베푸는 잔치에 한 번 초청을 받아 간 것도 황송하기 그지 없는데 연거퍼 두 번씩이나 초청을 받아 간다는 사실에 하만의 기분은 짱입니다.

대궐 문을 나오면서 모르드개가 꿇어 절을 하기는 커녕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그냥 참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만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를 불러 신나서 자랑을 합니다.

(에 5:9) 그 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에 5:10)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에 5:11)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에 5:12)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 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하만은 친구들과 아내 앞에서 이같은 자신의 큰 영광과 자녀의 많음, 또 권세와 지위의 높음 등 이생의 자랑들을 늘어 놓습니다.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 보았자 허당입니다.

하만은 바로 내일에 닦칠 자신의 운명도 모르고 이렇게 좋아 날뛰는 것입니다.

하만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운명도 모르고 날뛰는 자가 세상에 어디 하만 뿐이겠습니까?

많은 인간들이 내일 일도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날뛰며 세상을 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오늘 밤에 죽을 것도 모르고 여러 해 먹고 마실 것을 쌓아 놓 창고를 짓겠다고 하는 부자의 비유를 들어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눅 12:16)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눅 12:17)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눅 12:18)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눅 12:19)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눅 12:20)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눅 12:21)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어서 하만은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에게 한 가지 불만을 토로합니다.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어 만족스러운데 대궐 문 앞에 앉아 절도 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모르드개 하나가 눈에 거슬린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말을 들은 친구들과 아내는 즉석에서 한 가지 안을 제안합니다.

(에 5:13)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에 5:14)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오십 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개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끼리끼리 논다고 하만 뿐만 아니라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 모두는 참으로 악한자들입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돈 많고 세상의 권력있는 자에게 아부하기에 바쁩니다.

그들은 당장 오십 규빗 약 25m 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구하여 모르드개를 거기에다 매달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모르드개가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아 거슬린다고 한들 그것으로 인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옳은 처사입니까?

이렇게 5 장은 끝을 맺습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에스더는 우려와는 달리 첫 번째 큰 난관을 무사히 통과하긴 했지만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이제 두 번째 난관을 뚫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성격이 즉흥적이라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모든 일을 조심 조심 헤쳐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기도한 후 구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급해 하지 아니하고 차근 차근 일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기도로 구한 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결단있게 행동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게 하는 자들과 함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본문을 특별히 에스더의 믿음의 행동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상관하심에 초점을 두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에스더는 금식 기도 후 왕실의 규례를 어기고 담대하게 부르지도 않은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금식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믿음을 보시고 에스더로 하여금 왕 앞에 은혜를 입도록 역사하셨습니다.

2. 에스더는 왕이 소원을 물었을 때 조급하게 일을 진행시키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왕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실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왕 앞에 나타났을 때에는 필히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질문입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바로 자신의 소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신비한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가 초청한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기 전 날 밤에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불면의 밤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아하수에로 왕은 그 밤에 역대 일기를 뒤적거립니다.

그리고 왕은 역대 일기 중 하필 모르드개가 왕의 암살 음모를 막은 사건에 대해 읽습니다.

왕은 잊혀진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회상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공로자 모르드개가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모르드개에게 상을 내려야 하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참으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역대 일기가 방대한 분량이었을텐데 그 중에서 왕이 그날 밤 하필 이 사건이 쓰여진 곳을 펼쳐 읽게 된 일이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에스더가 왕에게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는 자신의 소원을 말하기 전에 왕으로 하여금 모르드개의 공적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야만 합니다.

결코 자신이 하나님 보다 앞서가면 안됩니다.

### 3. 에스더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에스더는 왕을 두 번이나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소원을 들어 주게 할 방법을 모색한 결과 이같이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왕에게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왕 앞에서 하만의 잘못을 고발할 때 하만에게 변명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석에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계획을 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략을 짜고 행하면 결국은 좋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난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한 것을 받은 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하며 전진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